

미를 인정했다.<sup>61)</sup> 또한 K. Löwith의 경우 어거스틴을 평가하는 결론 부분에서, 어거스틴과 같은 이의 정신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의 “과학”으로서의 표준들과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을 제어하려는 그것의 최상의 야심을 잊어야 할 거성며, 성경의 권위 특히 선지적 예언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제어하지 못할 섭리의(of God’s unmanageable providence) 권위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공감하게 된다.<sup>62)</sup>

이상에 고찰한 바와 같이 어거스틴이 구축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사상으로서의 역사관은 명확하게 역사철학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니며, 그 자체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더 완전해질 기독교 역사철학에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그의 사관은 역사철학으로서의 견고한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61) Karl Jaspers, op. cit., pp. 101~102.

62) K. Löwith, op. cit., p. 173.

## 舊約에 나타난 야위의 自己啓示의 도구로서의 땅

朴 順 得  
(M. Div.)

목	차
I. 서론	1)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
II. 본론	2) 아름다운 삶과 땅의 경 영
1. 창세기에서 사사기에 이르 는 땅	3) 아름다운 삶과 땅의 상 실
1) 약속과 성취로서의 땅	3. 포로시대의 땅
2) 선물로서의 땅	1) 회복된 땅
3) 축복으로서의 땅	2) 상징으로서의 땅
4) 특별한 삶을 살 것을 요 구하는 땅	III. 결론
2. 1,000-587 B.C.의 땅과 삶	참고문헌

### I. 서 론

최근까지 땅에 관한 신학적 논쟁은 문헌상으로 거의 부재하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네번째로 가장 흔한 명사 또는 실명사가 땅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통계상으로 땅이 언약보다도 더 지배적인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문이나 구약신학자들이 쓴 책에서 땅이라는 주제는 실로 미미한 정도로 취급될 뿐이다. 출애굽기 3:9에 처음 언급되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만 초점을 두고 안식의 땅 또는 풍부의 땅에 한정시키고 마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땅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땅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삼자관계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더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그 땅의 의미를 보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땅의 의미는

1) E.A. Martens, *God’s Design*. (London: Inter-varsity, 1981), p. 97.

포로기에 있어서도 같은 의미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땅의 발전적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1) 역사적으로 2) 상징적으로 땅이 가지는 의미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몇가지 주제들이 연구전체를 통해서 증명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첫번째, 구약의 순서에 따라 역사적인 흐름을 검토한다. 두번째는 율법서, 예언서의 구분에 따라 땅의 의미를 고찰하여 서로 관련성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구약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땅의 주제들을 찾는다.

이 연구를 위한 일차자료들은 마아턴스,<sup>2)</sup> 브루지만,<sup>3)</sup> 카이저,<sup>4)</sup> 맥코미스키,<sup>5)</sup> 짐멀리<sup>6)</sup> 등의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구약에서 특별히 땅과 관계해서는 야웨의 계획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논지를 설명할 것이다. 제 일장에서는 창세기에서 사사기에 이르는 땅은 약속, 선물, 축복, 삶의 유형으로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음을 밝힌다. 제 이장에서는 지혜문학, 역사, 선지자의 세가지 관점에서 삶이 직접적으로 땅과 관계되어 있음을 밝힌다. 제 삼장에서는 포로기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새롭게 주어진 땅이 있었기 때문임을 밝힌다.

## II. 본 론

### 1. 창세기에서 사사기에 이르는 땅

이때의 땅은 세가지 넓은 영역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땅은 약속된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출애굽기 6장)'. 둘째, 땅은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출애굽기 6장). 세째, 삶의 유형과 연합되어 있는 땅이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신명기)'.

#### 1) 약속과 성취로서의 땅

2) Ibid.

3) W.Brueggemann, *The Lan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4) W.C. Kaiser, *Toward An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78)

5) T.E. McComiskey, *The Covenants of Promise* "계약신학과 약속"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6) W. Zimmerli, "구약신학" 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 까지의 문헌의 구성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있다. 이 도식에서 땅은 주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땅의 약속에서 시작한다(창12:1 이하). 그와(13:14-16; 15:18-21; 17:8) 그의 자손들, 이삭(26:3-4, 24)과 야곱(28:3 이하, 13-15; 35:9-12) 양자에게 반복적으로 확립된 약속은 출6:8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야웨의 말씀에서와 광야여행의 노정(출33:1)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여호수아의 때에는 땅의 약속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성취이다.

#### ① 의식과 맹세(Sworn, Say)와 관련됨<sup>7)</sup>

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한 야웨의 말씀속에서 나타난다.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창 12:7). 또 다른 표현은 출애굽적인 언어와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라'(창 15:7) 이 약속에 대한 검증은 고대 의식 속에서 제공된 것이다.<sup>8)</sup> 고대문서로 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그 의식은 약속을 시행하는자(Promise-maker)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약속을 시행하는 자의 운명이 약속을 맺을 때 처해지는 동물들의 운명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창 15:18 참조).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는 야웨의 의도와 가장 빈번하게 결합된 동사는 'to swear'이다. 그래서 데이비시는 '맹세의 땅이 약속된 땅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한다.<sup>9)</sup>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맹세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하였던 약속을 언급한다(창 24:7).

#### ② 자손들과 관련됨.

땅 약속은 주로 자손들과 관련되어 있다(창 13:14-16; 26:4; 27:3; 35:9-12). 전형적인 것은 야곱에 의해 나타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창 48:4).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되풀이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 약속의 실현자인 이삭에게 하나님은 재 확증하셨다(창 26:4 참조).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은 상호보충적이다. 많은 자손들은 그만한 삶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땅은 점령자를 필요로 한다. 처음부터 백성

7) E.A. Martens, op. cit., p. 98.

8) Ibid.

9) W.D. Davies, *The Gospel and The Land*(Berkely: University of Cakufinia press, 1974), p. 6.

과 땅은 서로 속하고, 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sup>10)</sup>

중종 야웨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는 축복의 약속은 자손들(창 12:1-3; 22:17; 26:24)과 관계해서 나타나며 또는 땅과 후손 모두에 관계해서 발견된다(창 17:4-8; 28:13-15).

약속의 성취는 족장들의 이와기에서와 초기 이스라엘에게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확실히 여리고 땅의 진입은 약속의 성취를 나타낸다.<sup>11)</sup>

### ③ 경계와 지역에 관련됨

경계와 지역에 관한 약속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 또한 점차로 일어났다. 땅의 경계들은 약간의 융통성이 가능한 한 충분히 불분명하다.

약속에 들어 있는 경계에 관한 묘사에서 땅은 특별히 가나안 지역으로 지목되어 있었다(창 12:5-7). 창세기 15:18에서 약속된 지역의 경계는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로 묘사되어 있다.<sup>12)</sup> 더욱 확장된 북방 경계선 근방은 다윗이 아람군을 정벌했을 때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왔다(대상 18:3-18).

창세기 15:18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출애굽기 23:31 이하에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민수기 34:1-10에는 작은 지역에서 동서남북 경계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 신명기 11:24에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까지와 유브라데하수라”(=수 1:2-4), 출애굽기 3:17과 민수기 34:2은 가나안 땅으로, 신명기 1:7은 아모리 땅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지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경계선을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 ④ 약속성취와 관련됨

아브라함은 우르에 있을 동안에 땅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에 단순히 도착한 것 만으로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한정된 의미에서 성취된 그 약속을 정당한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약속은 반복되었고 차츰 명료하게 되었다.<sup>14)</sup>

여호수아시에 보다 강하게 이루어졌다. 그때는 ‘야웨께서 하신 말씀이 한

10) E.A. Martens, op. cit., p. 99.

11) Ibid.

12) Buchanan은 “큰강”(창 15:18)이 유브라데(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레바논의 Akkar 산 남쪽에 있는 큰강(The Great River)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그는 큰강 유브라데를 해석상의 삽입으로 간주한다. *The Consequences of the Covenants*, pp. 94-101.

13) E.A. Martens, op. cit., p. 100.

14) Ibid.

마디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다’(수 23:14)고 고백했다. 더 완전한 성취는 다윗의 때에 되었는데 그 때는 정복된 영토의 범위가 주어진 약속 안에서 더 넓은 경계에 상당하던 때였다.

### ⑤ 신학적 중요성

a) 근동의 신화적 개념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신화로서의 아니라 역사의 영역 안에서, 백성의 삶속에서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다.<sup>15)</sup>

b) 약속성취의 과정에는 난관이 있었다.<sup>16)</sup>

c) 땅의 약속은 성경에서 더 큰 약속성취의 부분이라는 사실임을 주목하게 한다.<sup>17)</sup>

## 2) 선물로서의 땅

출애굽기는 땅을 약속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땅이 선물임을 나타낸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출 6:8). 땅의 약속과 선물사이의 관계는 밀접하다(신 1:7; 6:10, 23 참조).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땅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도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신명기에서 선물로서의 땅에 관한 설명은 30번 가량 나타난다. 신명기에서 그 땅은 거의 25회나 반복되는 언급에서 ‘땅은 여호와의 선물’로 불리었다(신 1:8, 35; 6:10, 18, 23; 7:13; 8:1; 9:5; 10:11; 11:9, 21; 19:8; 26:3, 15; 28:11; 30:20; 31:7, 20-21, 23; 34:4)<sup>19)</sup>

### ① 야웨의 은혜에 의지하는 땅

이 주제를 반복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문맥 안에서 야웨편에서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주도권은 야웨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일어난 것으로 땅은 전적으로 선물이다.<sup>20)</sup>

### ②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땅

땅은 인간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법체없이 갔다가 실패했으며(민 14:39-45) 아이성공격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정복하지 못했다. 정복한 후라 할지라도 그 땅에 대한 이

15) 이병렬, 에베즈 이스라엘(서울:요단출판사), p. 70.

16) E.A. Martens, p. 101.

17) Ibid., p. 102.

18) Patrick D. Miller, “The Gift of God: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Land”, *Interpretation* 23(1969), pp. 451-465.

19) Walter C. Kaise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1978), p. 171.

20) Patrick D. Miller, op. cit.

스라엘의 관계는 야웨께 의존되어 있었다.<sup>21)</sup>

레위기 25:23의 “...토지는 다 내것임이니라. 너희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은 야웨는 소유주이며 이스라엘은 소작인임을 나타낸다.<sup>22)</sup>

### ③ 기업

폰라드는 “기업(나할라)”이라는 말이 풀이 없이 지파의 땅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육경 어디에도 전체의 땅이 여호와와 “기업”으로 불리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았다.<sup>23)</sup> 그러나 땅이 여호와와 기업으로 사용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헤르만(Hermann)은 여호수아의 할 일은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받을 온 땅을 취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신 1:38; 3:28; 31:7; 수1:6). 그들은 개별적으로 그들의 “몫”, “분깃”, 혹은 “기업”(수 14:2; 15:11; 16:1; 17:1; 18:11; 19:1, 10, 17, 24, 32, 40, 51)을 받고 만족해 하고 그들의 본분을 다해야 했다. 이일 이전에 족장들은 장차 있을 성취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 땅의 적은 부분인 매장지만을 소유하였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아안은 “그들의 우거하는 땅”이었다(창 17:8; 28:4; 36:7; 37:1; 47:1; 출 6:4) 족장들은 주로 언약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그 자체는 소유하지 않았다.<sup>24)</sup>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소유”해야만 했다. 밀러(Miller)가 지적한 대로 이 개념들 모두는 “여호와께서 내가 소유하도록 주신 땅”이라는 표현과 병행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책임이 정반대가 아니라 보충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sup>25)</sup>

기업은 단순히 “상업적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께 의무가 있는 토지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다. 딸들에게도 상속을 허락하는 제도와 조상의 유산을 사려고 하는 아합왕에 대한 나봇의 거절행동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민 36장, 왕상 21장 참조).<sup>26)</sup> 포로시대의 예언자들은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의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합법적으로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렘 12:14-16; 16; 겔 36:8-15)<sup>27)</sup>

21) W.Brueggemann, op.cit. p. 57.

22) 이병렬, pp. 62-63.

23) W.C. Kaiser, p. 172.

24) J.Hermann, *Nah<sup>al</sup> Nahal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Eerdmans, 1965), p. 771.

25) W.C. Kaiser, pp. 172-173. “Nah<sup>al</sup> and Nahal in the Old Testament,

26) W.Zimmerli, pp. 85-86.

27) E.A. Martens, pp. 105-106.

### 3) 축복으로서의 땅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은 그의 창조활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을 선언했던 것처럼 “좋은 땅”으로만 불리울 수 있었다(신 1:25, 35; 3:25; 4:21-22; 6:18; 8:7, 10; 9:16; 11:17). 그것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sup>28)</sup>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었으나(신 15:4; 23:20; 28:8; 30:16) 특별한 강조는 땅의 축복에 있었다.<sup>29)</sup>

야웨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에서(출 3:8)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것으로서 땅은 열매, 부요, 미(美)와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풍부하게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땅이라는 것이다.<sup>30)</sup>

이 축복으로서 가지는 땅의 의미는 풍부와 안식이다.

#### ① 풍부의 축복

성경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본래 땅의 기름짐, 비옥을 가리킨다.<sup>31)</sup> 신명기 8:7(하)-9(상)에 “그 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의 풍부와 이상적인 것들이 애굽의 땅과 비교해서 훨씬 낫기 때문이다(신 11:10-12).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신 11:12) 혜택받은 땅이며, 일종의 낙원과 같은 것이다.<sup>32)</sup>

#### ② 안식의 축복

##### a) 육체적 안식

족장들의 언약 그 어떤 곳에서도 “안식”은 족장들이나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적인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신명기 12:9에 처음 등장하였을 때, 이미 백성들의 전승에서 알려져 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

28) J.A. Tompson, *Deuteronomy*, pp. 120-121. 이와 같은 귀절은 이집트의 시누에 설화에, 출애굽기에서 4회(3:14, 17; 13:5; 33:3), 레위기(20:24)에, 민수기에서 4회(13:27; 14:8; 16:13, 14), 신명기에 5회(11:9; 26:9, 15; 27:3; 31:20) 나타난다.

29) W.C. Kaiser, pp. 173-174.

30) J.G. Ploeger, quoted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Eerdmans, 1974), p. 403.

31) E.A. Martens, p. 107.

32) Ibid.

을 때와 같은 초기에 그가 “안식”을 약속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출 33:14). 후에 신명기 3:20에서 모세는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때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불원간 찾아올 “안식”을 약속하였다.<sup>33)</sup>

신명기 12:9의 용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안식하다”(누아흐)에 개인 혹은 단체와 함께 전치사(“To, For”)가 따라올 때는 언제나 그것의 특수한 상태를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야웨로 부터 받은 장소(출 33:14; 신 3:20; 수1:13, 15; 22:4대하 14:5), 주변의 적들로부터의 평화와 안전(신 12:10; 25:19; 수 21:44; 23:1; 삼하 7:1, 11; 왕상 5:18; 대상 22:9; 23:25; 대하 14:6; 15:15; 20:30; 32:22) 또는 미래에 있을 슬픔과 수고의 종식(시 14:3; 28:12) 등을 나타내었다.<sup>34)</sup> 폰라드는 특별히 “이 안식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대적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유리함으로 지친 민족에게 주어진 아주 현실적인 평안이다”라고 주장한다.<sup>35)</sup>

땅과 관계해서 “안식”은 비록 그것을 구속사건의 결과 일지라도 거의 육체적 안식이다. 물리적인 안전, 보금자리, 토대로서의 이같은 안식의 견해에 대한 증거는 신명기 12:9-10에서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 b) 영적안식

“안식”에는 지형학적인 의미상의 내용이 있었다.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머물거나(광야의 방랑생활에서—민 10:33),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있었다(대상 8:2; 시 132:8, 14; 사 66:1). 의심할 바 없이 그 이유는 다윗이 시편 95:11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조건은 한낱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다.<sup>37)</sup>

특별히 신명기에서 보여진 “안식”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평안과 안전속에서 그를 기뻐할 수 있는 정황을 제공하고 있다. 평안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택하실 것이다. 그곳은 성소이다(11절). 이 중앙성소는 경배하는 공동체의 집합점이며(11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의 구현이다(12절, 창 17:7-8참조).<sup>38)</sup> 안식의 개념은 국가적이지도 동시에 영적이다.<sup>39)</sup>

33) W.C. Kaiser, p. 174.

34) Ibid., pp. 174-175.

35) Von Rad, “There remains still a Rest for the people of God: An Investigation of a Biblical Conception”, in *the problem of Hexateuch, and Other Essays*. trans. E. W. Truman(New York: McGraw-Hill, 1966), p. 95.

36) E.A. Martens, p. 107.

37) Kaiser, pp. 175-176.

38) T.E. McComiskey, op.cit., pp. 42-43.

39) Martens, pp. 107-108.

#### 4) 특별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땅

인간의 행동과 행위는 땅과의 관계속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땅과 삶의 유형 사이의 연합에는 대별해 볼 때, 도덕적이며 제의적인 책임, 땅의 사용에 관계된 특별한 규칙들, 그리고 제의적인 절기들이 있다.<sup>40)</sup>

다양한 규제들은 땅에 들어갈 즈음에 준수하도록 선포된 것인데, 전형적인 것은 신명기 12:1말씀이다. “네 열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비교 11:31-32; 4:5, 14; 15:31; 6:1). 이것은 규정된 행위의 유형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필요적절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1)</sup>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간 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계속적으로 순종을 할 때는 그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높은 상류사회의 생활을 즐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신 4:10; 12:1; 31:13).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계속 남을 특권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이스라엘도 삶과 죽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다. 생명과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다.<sup>42)</sup>

##### ① 시민적인 것

이런 규정들은 그 범위가 넓다. 왕정시에 대한 지시(신 17:14이하), 피 흘리는 보수자를 규정하는 복잡한 시민법의 한 부분으로서 그 땅에서 살인자를 위해 세워지는 도피성(신 19:7 이하), 가정에서의 종교교육(신 6:9 이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규정(신 12:20이하) 등이다.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지침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평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땅에 “꼭 맞는”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sup>43)</sup>

##### ② 도덕적인 것

율법과 땅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민적인 규정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는다. 잘못된 행동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간음(레 19:29), 피를 흘리는 것(민 35:29-34), 나무에 달린 자(신 21:23), 이혼(신 24:4) 등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sup>44)</sup>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그들속에서 직접 땅과 관계된 것은 아니나 가족과

40) Ibid.

41) Ibid.

42) Kaiser, p. 177.

43) Martens, op.c. cit.

44) Ibid.

관계된 이러한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규정들에 대한 위반은 땅을 더럽힌다고 말해졌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인가? 첫째, 그것은 야웨께서 땅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의미에서이다. “너희는 너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민 35:34 상). 둘째는 이스라엘과 야웨사이의 “중심용어”가 땅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땅은 야웨의 실체적인 상징이다. 야웨와 땅사이의 연합은 너무 밀접해서 야웨에 대한 위반은 땅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고도 땅은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상징화 한다.<sup>45)</sup>

짐승과의 교접, 호모섹스의 행위, 인간제사 등은 금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행할 경우 토라가 속해있는 이스라엘만 땅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토라를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밖의 백성들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sup>46)</sup> 그러므로 땅이 부도덕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야웨에 대한 땅의 관계에서인 것이다.

### ③ 종교적인 것

야웨에 대한 순종은 땅에서 사는데 적합하며, 야웨의 가르침에 대해 경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땅을 더럽힌다고 할 수 있다.<sup>47)</sup> 땅을 계속 점령한다는 것은 그것자체가 법을 준수하는 것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법 준수에 대한 동기는 약속에 근거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라”(신 8:1). 율법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가져 오는데 무엇보다도 땅에서의 번성과 결실이다(신 28:1-14).

축복이 순종에 따른 것이라면 땅 안에서의 저주나 심지어 땅으로 부터 쫓겨남은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다(신 28:15-68). 비의 부족, 원수에게 패배, 배부적 혼돈, 질병들은 기대될 수 있는 약간의 재난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재난은 “네가 땅에서 뽑힐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너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흠뻑할 것이다(신 28:63-64). 이스라엘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땅이 그들을 그 곳에서 토해낼 것이다(레 20:22-26)

얼핏보면 땅의 선물에 수반되는 약속은 요컨대 땅이 선물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몇몇 구절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이것이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었다는 인상을 준다(예/신 8:1).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선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땅에 머무를 권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말로써 고려될 수 있다.<sup>48)</sup>

가나안땅이 선물로 하사된 축복이고 보니 그 선물 받은 자로서의 책임도 있다. 가나안땅 진입시 준수해야 할 여러가지 규범들이 있다. 전세인은 주인의 요구에 응해서 사는 것이다(신 12:1; 11:13-32; 5:31; 6:1 등). 그래서 안식년, 희년 등의 절기에서 우리 삶의 필수적 순환연수에서 주신자와 그 이웃에 대한 생활양식이 나타내어지고 있다<sup>49)</sup>

#### a) 안식년

제 7년은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분이 부족하여 기근이 심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아래 있으면 안심해도 좋다. 제 6년에 야웨가 복을 주어 소출이 풍성하여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된다(레 25:21).

6년 동안 과중하고 7년째는 땅을 묵히지만 과수 등 거기서 나는 수출들은 가난한 자들(땅이 없는자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 등)과 짐승들까지 먹게한다. 이처럼 제 7년 되는 안식년은 가난한 자와 땅이 없이 거주하는 나그네의 해이기도 하다. 7년째는 땅의 휴식 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잃었던 권리가 회복되며 자유가 보장된다. 안식년이 오면 히브리인의 종이 땅이 없어 빚으로 팔려왔어도 자유를 찾는 해가 된다(출 21:1-2). 7년이 오면 채무가 자동적으로 면제되며 갠 자가 석방되고 용서를 받는다(신 15:1-18). 안식년이 있어 재산을 되돌려 주고 탕감해 주기 때문에 부의 분배가 공평해진다. 부의 편재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해가 안식년으로서 정신적인 자유와 물질적인 자유를 동시에 보장받은 해이기도 하다.<sup>50)</sup>

#### b) 희년

제 50년 나팔(양각)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유의 해로 선포되며 그 순간 포로된 자 노예가 속박의 사슬에 풀려나온다. 노예상태에서, 옥살이에서 모두가 해방받고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해인 것이다. 이때 모든 농토에는 과종이 멈춘다.

레위기법에 근거한 토지제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다. 그리고 영속적으로 물려주도록 하나님으로 부터 기업으로서 분배받았을 때 이 제도는 실시되었다. 토지가 분할되면 경계선이 생기고 이 선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기 가문이 받은 몫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침해당할 수 없으며 양도해서도 안된다. 토지는 절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가족수대로 분배받았기 때문이다. 땅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척결혼과

45) Ibid., pp. 108-109.

46) Ibid.

47) Ibid.

48) Ibid., p. 110.

49) 박종철, “기업분배의 의의”(여호수아서 강의안)

50) 이병렬, op. cit., pp. 61-69.

시형제 결혼법이 제도화 되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매도할 수 없으나 가산이나 땅에서 소출한 것은 팔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팔 때 값도 회년에 의해서 조정된다. 회년이 가까우면 값이 내리고 멀면 올라야 한다(레 26:16). 땅 소유주가 땅을 팔고자 할 때는 회년까지만 임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팔다”의 동사(아카르)는 ‘팔다’가 아니라 ‘세놓다’, ‘임대하다’에 쓰인다. 그러므로 땅을 매입한 자도 이 해가 오면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50년마다 토지는 원주인과 가족수대로 재분배받는다. 그리고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sup>51)</sup>

구약에서 땅, 이스라엘, 야웨가 서로 속해 있다는 것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 삼자관계 안에서 가족의 권리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았다.<sup>52)</sup>

그러므로 안식년과 회년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어떤 이해관계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제의적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사고 파는 권한을 허락지 않음으로 나그네성을 교육하기 위한 본을 삼았다. 근본원리는 땅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53)</sup>

### c) 절기들

절기와 관계된 삶의 유형은 감사와 기쁨이다. 절기에 대한 가르침은 네개의 율법책에 각각 나타난다(출 23:1, 34:1, 레 23:1, 민 28:1, 신 16:1). 각각 일주일의 절기는 세가지 중요한 연중행사의 절기들에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이 있는데 모두 땅(들판)으로부터의 수확과 관계되어 있다. 또한 그것들은 종교적인 행사들이었다. 그 나라의 모든 성인 남자는 이 모두의 절기때에 자신을 성소에 보이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절기가 “야웨에 대한 절기”임을 말해주는 것이다.<sup>54)</sup>

“이스라엘은 오직 야웨의 손을 통하여서만 토지의 축복과 모체의 축복을 받았다. 야웨에게 모든 임신의 능력과 생물성장의 힘이 속해 있으며 야웨에게 속하지 않은것은 하나도 없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6:5-10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토지의 소산을 담은 광주리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토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견해를 짐머리는 주장한다.<sup>55)</sup>

51) Ibid.

52) C.J. Write, “Family, Land and Property in Ancient Israel-Some Aspects of Old Testament Social Ethics”, University of Cambridge, 1976.

53) 박종철, “기업분배의 의의”(여호수아서 강의안)

54) Martens, pp. 113-114.

55) Zimmerli, pp. 87-88.

그러나 야웨에 대한 절기로서 절기가 갖는 성격은 성소안에서의 의식을 통해서 거기서 야웨의 말씀과 사역이 보호되며 또한 인식되게 되는 데 있다.<sup>56)</sup> 경배자는 감사와 보답을 야웨께 표현했다. 경배자가 야웨앞에 그의 재물을 드리면서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신 29:2-4). 왜냐하면 역사안에서의 야웨의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소산물을 바치는 것은 창조자로서의 야웨에 대한 인식에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야웨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배자가 야웨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창조의 영역을 즐거워하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압박으로 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인 것이다.<sup>57)</sup>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며 이 때 땅은 현저할만 하게 초점이 되는 것이다.

신명기의 가르침에서 볼 때, 절기들은 처음은 야웨를 위한 절기이지만 또한 사람들을 위한 절기이기도 하다. 성인남자들은 성소에 자신을 보였지만 절기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sup>58)</sup> 아들들, 딸들, 종들,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역시도 즐거운 분위기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절기에서 잘 표현되어지게 되었다.

## 2. 1000-587 B.C.의 땅과 삶

출애굽기 5:22-6:8에 말씀한 바와 같이 호세아 2:14-23에 반복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땅에 밭을 틔는 것을 넘어 그들이 땅을 소유하여 살게 되는데 까지 나아간다.<sup>59)</sup>

아름다운 삶을 위한 그 계획이 1000-287 B.C.동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다. 첫째, 지혜문학의 관점에서 본 아름다운 삶, 둘째, 역사가들의 견해에서 본 삶과 땅의 경영, 세째, 예언자들의 평가에서 본 삶과 땅의 상실이다.

### 1)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

‘지혜의 선포는 한마디 말로 “생명”이라 요약될 수 있다.’<sup>60)</sup> 이 견해에 대한 지지구절은 ‘나를 찾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함 8:35)이다. 하나님의 구

56) Martens, loc. cit.

57) Ibid.

58) Ibid.

59) Ibid.

60) R.Murphy, “The Kerygma of the Book of Proverbs” *Interpretation*20(1966), p.9.

원행위의 목적은 그 백성을 땅으로 인도하시므로써 새로운 질적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신 30:15-16, 20절 참보). 지혜문학에서도 같은 생명의 주제를 들을 수 있다(잠 4:10, 13).<sup>61)</sup>

#### ① 지혜문학에 따르는 삶의 특징

##### a) 하나님의 창조기술

지혜문학은 창조의 주제를 취급한다.<sup>62)</sup>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다른 고대근동의 창조기사에서 발견되는 혼란의 신화적 배경은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권능으로 바다를 흥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욥 26:12-13, 혼란의 주제로는 시 89:10; 사 41:9-10 참조). 그러나 창조의 자료는 지혜의 역할안에 있다.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지혜와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욥 28:23-28; 38:4, 33 참조). 잠언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많이 열거될 수 있으나 강조는 지혜에 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창조하셨다”(3:19; 8:22; 32, 35).

##### b) 자연찬미

지혜에 있어서 자연세계는 긍정적이다. 더우기 육체적 형태의미가 멀시되지 않고 열렬하게 찬양을 받는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솔로몬의 아가에서 각각 애인의 몸을 찬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열적인 감정이 인식되며, 탐닉되며 성적인 관심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sup>63)</sup>

##### c) 삶의 도덕적 차원

자연에 대한 모든 열정에 있어서도 그것 자체가 우상으로 숭배받도록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창조자로 부터의 선물로 존재하는 것이다.<sup>64)</sup> 지혜서에서 도덕적 삶의 차원은 최전선에 놓여 있다. 현명한 사람은 의를 추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악하다. 강조점은 윤리적인 원칙들에 있다. 야웨는 “교만과 속임과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잠 6:16-17).

이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잠 17:27), 가난한 자에게 자비로운 사람(잠 19:17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잠 23:10-11),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중재하는 사람(잠 23:24),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잠 15:20)으로 묘사된다.

도덕성과 관계해서 지적되는 것은 보상에 관한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잠 12:2). 이 보상에 대한 관심은 도덕적인 선택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좋은 선택은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받는다.<sup>65)</sup>

##### d) 여호와 경외

야웨에 대한 경외는 지혜자료에 있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지혜의 초기에 그것은 생명의 수단으로 알려졌다(잠 1:7; 9; 10; 욥 28:28).<sup>66)</sup> 야웨에 대한 경외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이다. 잠언에 따르면, 또한 신명기에서도 야웨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신 10:12-13).<sup>67)</sup>

누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신 4:10; 5:26; 14:23; 17:19; 31:12-13; 시 34:11(12)). 이 경외(두려움)은 “인간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생활의 모든 면을 위한 지도원리였다(신 4:10; 5:26; 14:23; 31:13; 잠 23:17).<sup>68)</sup>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그들은 악을 피하였다(시 34:11, 14; 욥 1:1, 8; 2:3; 28:28). 사실 그들은 악을 미워하였고(잠 3:7; 16:6) 정직하게 행하여(14:2) 폐역하게 행치 않았다(16:17). 이러한 형태의 삶의 결과는 장수였으며(10:27) 재물과 영광의 증대였으며(22:4) 안전과 보호였다(14:26; 19:23). 축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 갖추어야 할 특성과의 관계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었다.<sup>69)</sup>

##### e) 삶의 기술

지혜는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지혜는 기술이다. 지혜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장색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기술적인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를 알며 다른 사람들의 분노와 노를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잠 17:27). 자녀를 또한 근실히 다룰 것이며(잠 13:24)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일 것이다(잠 19:11). 주위하는 것과 지혜는 매일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기술적인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되어진다(잠 15:19; 24:30-34; 13:14; 14:23-24; 31:10-19; 23:

65) Ibid., pp. 178-179.

66) Ibid., pp. 178-179.

67) Henri Blocher, “The Fear of the Lord as the ‘principle’ of Wisdom”, *Tyndale Bulletin* 28(1977), pp. 3-28.

68) Wenfeld, “The Rdar of God”, *Wisdom Substrata*, pp. 274-281; Gerhard von Rad, *Wisdom in Israel*(Nashville:Abingdon, 1972), pp. 65-73.

69) Kaiser, pp. 232-233.

61) Martens, *opc. cit.*

62) Ibid., p. 177.

63) Ibid., p. 178.

64) Ibid.



1-3).<sup>70)</sup>

## ② 구원계획과 지혜문학

시 37편(지혜서)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은유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들은 땅에 거할 것이다(시 37:3, 9, 11, 29). 이런 구절은 구원역사와 지혜문학 사이의 조화를 가리킨다.<sup>71)</sup>

훨씬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서 지혜문학은 땅의 주제에 적합하다. 구원역사와 지혜문학 양자에 있어서 “계획”은 중요한 요소이다. 지혜자료를 뒷받침하는 확실적인 것은 우주속에서 계획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만물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알아차린 사람이었다.<sup>72)</sup>

야웨의 목적은 호세아서 2:14-23에서 뒷받침된다. 즉 출애굽기에서 처럼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풍요로운 사람이 야웨의 목적과 동일시 된다.

지혜자료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한다면 이 세상적이고 지상적인 잠언의 가르침이 모세의 약속과 그 성취에서 제시된 것처럼 토지와 토양으로서의 땅이라는 사실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나타나는 바로 덜 신학적이고 더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땅’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sup>73)</sup>

한가지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땅의 소유와 아름다운 삶의 약속은 지혜문학이 강조하는 삶과 서로 관련이 있다. 땅의 약속은 시편에 탁월하게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약속의 한가지 양상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된다. 즉 땅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시 37:27-29, 34; 85:1; 85:8-9(9-10)참조). 이것은 잠언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여도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잠 2:21).<sup>74)</sup>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 역사적 자료와 지혜자료 양자에는 공통분모로서 계획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역사인 토라와 개인주의로서의 지혜간에는 차이가 커다는 것이다. 토라에서는 “그러므로 야웨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신적 계시의 전달들이 권위있게 주어져 있으나 지혜자료에서는 빠져 있다. 대신에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축적으로 부터 어떤 것과 마주치게 된다. 구약의 대부분의 방향은 이스라엘이며 그 주제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나 지혜서에서는 국제적인 단계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언 22:17-24:22은 애굽의 Amenemope의 초기 지혜서에서 그 본을 삼고 있다.<sup>75)</sup>

지혜문서는 야웨를 일상생활에 중요한 질서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 역사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야웨의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지혜문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sup>76)</sup>

지혜자료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이며 비교이며 때때로는 비유이다. 그러므로 구원역사와 지혜의 문맥들은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2) 아름다운 삶과 땅의 경영

지혜문학은 크게는 야웨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자신을 우주적 질서에 순응하도록 부름을 받은 개인에게 지향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의 자료들은 공동체와 자원들, 특별히 땅의 경영과 관계되어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농사짓는 땅은 삶의 특질을 결정하는데 자못 중요했다. 땅과 자원들의 경영은 개인 이스라엘이 잘살고 못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sup>77)</sup> 특별히 군주제에 의한 경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 ① 땅 경영 지침

신명기에서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자료는 왕은 “네 형제들 중의 한 사람인 이스라엘인이 될 것이라”고 하고나서 부정적인 명령들과 긍정적인 명령들을 서술한 것이다(신 17:15 이하). 이스라엘의 군주제는 형태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반면에 그 성격상으로는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땅의 자원들과 백성들을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 사용했으나 이스라엘의 왕은 재산이나 부의 축적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아내들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압제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다.<sup>78)</sup>

결혼은 다른 권력들과 동맹을 맺는 한가지 유형이었으므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복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야웨께 의존하도록 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주어졌다. 즉 왕은 그의 백성들과 동등하게 남아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딸들과 아내들과 은 금 안에서

70) Martens, pp. 180-181.

71) Kaiser, loc. cit.

72) Ibid., p. 244.

73) Martens, op. cit., p. 182.

74) McComiskey, op. cit., p. 48.

75) John Ruffle, “The Teaching of Amenemop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Book of Proverbs”, *Tyndale Bulletin* 28(1977), pp. 29-68.

76) Zimmerli., p. 206.

77) Martens, p. 183.

78) Ibid., p.184.

그의 부로 인하여 두드러져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sup>79)</sup>

왕은 토라의 등사를 보호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토라를 읽어야 했으며 자신을 위해 토라를 베끼도록 되어 있었다(신 17:18-20). 그의 행정적 잡일에 부가하여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 자신을 정복하는 이유는 왕이 그의 하나님 야웨를 경외토록 하기 위해서이며, 토라안에 있는 규례들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리함으로 그의 형제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신 17:20).<sup>80)</sup> 왕이 토라에 따라 자원들을 경영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신 7:20).

신명기 본문에서 땅 상실의 암시적인 위협은 한마디로 야웨의 법도와 성 후에 왕에게 하신 말씀속에서 나타난다. “만약에 솔로몬이 야웨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 율법으로부터 떠난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가 다른 이방신을 위해서 야웨를 버린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인가”(왕상 9:7). 즉, 왕들이 토라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칙에 의해 땅과 왕국을 경영하면 결과적으로 땅에서 삶을 살 것이며 그들이 토라를 불순종하고 잘못 경영하면 그 선물을 상실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sup>81)</sup>

### ② 땅 경영의 실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솔로몬왕을 본보기로서 들 수 있다. 솔로몬왕에 대한 사가의 기록은 처음에는 상당히 호의적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었고 그들은 마시고 즐거워 했다”(왕상 4:20). 솔로몬의 치세하에 이런 부요한 삶은 실제였다. 성전봉헌 후에 백성들은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왕상 8:63; 대하 7:10).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아래서 안전히 살았더라”(왕상 4:25)는 기록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라고 한 시바여왕의 표현에서 당시를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sup>82)</sup>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솔로몬의 치세말기까지 견디지 못했으며 후에는 발전 되지도 않는다. 기록상으로는 “이스라엘에 한평의 노예도 두지 않았다”

고 하지만(왕상 9:22).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들의 명에는 세금과 노동에 의해 무거웠다(왕상 12:4 참조).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거의 두배의 시간을 왕궁을 짓는데 소요했다(왕상 10:18). 그는 병거가 1,400 마병의 숫자가 12,000(왕상 10:26), 그리고 많은 이방여자들을 사랑하고 700명의 아내를 헤아렸다. 또한 이방신들을 직접 좇았다.<sup>83)</sup>

요컨대 그는 오직 야웨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위반했으며, 그의 형제들 중의 하나로 남지 않았다. 사무엘이 한 경고(삼상 8:10-18)를 거스리는 악들은 솔로몬의 통치를 대변하는 악들이다.<sup>84)</sup>

이스라엘을 다시 속국으로 전락시킨 솔로몬은 고대 오리엔트의 세속왕조를 능가하는 호화생활을 하였다. 솔로몬은 호화생활의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 공동체의 땅 일부를 팔아 먹었다. 솔로몬의 낭비 풍조와 불신앙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웨종교의 도덕성을 무너뜨렸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땅,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되고 분배받은 땅을 잃어가게 했다.<sup>85)</sup>

### 3) 아름다운 삶과 땅의 상실

이스라엘 역사의 영광스러운 부분은 이스라엘이 땅을 선물로 받았던 그 약속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sup>86)</sup> 그러나 이스라엘 이야기의 비극은 그 땅의 선물이 상실되는 데 있다. 땅의 상실이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경고들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어졌다(신 30:17-18). 그것들은 400년 역사의 과정 속에서 반복되었고 땅의 상실이 절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이 선포되었다.<sup>87)</sup>

사무엘의 고별설교는 백성들과 왕이 야웨를 섬기도록 권고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왕이 다 멸망 하리라”(삼상 12:25)고 경고했다. 히스기야가 이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움으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왕하 21:8)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였던 말씀이 사가에 의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진다. 이스라엘 왕들이

79) Ibid.

80) Ibid.

81) Ibid.

82) Ibid. p. 185.

83) Ibid.

84) Ibid.

85) 이병렬, p. 145.

86) Martens, p. 186.

87) Ibid.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계속적으로 땅에 점유할 수 있는 기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sup>88)</sup>

오래지 않아 땅의 상실에 대한 위협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땅에서부터 쫓겨날 것이라는 확고한 선포로서 대치되게 된다. 아히야는 단과 벨엘에 수송아지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왕인 여로보암1세의 아내를 통해서 멧새지를 전하기를, 이제는 그에게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흠으실 것을 말한다(왕상 14: 14-15).

아모스는 거짓선지자 아마사에게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암 7: 17)고 했다. 30년 후에 북왕국은 끝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땅으로부터 사로 잡혔다”(왕하 17: 23).

유다의 미가는 야곱집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에게 “시온은 밭갈이 값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미 3: 12). 그 말씀의 역사적 성취에 가장 가까운 선지자는 예레미야이다. 야웨께 북방으로 부터 재앙을 가져오실 것을 알렸으며(렘 4: 6) 야웨의 이름으로 여호야긴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낼 것이다”(렘 22: 26)고 전했다. 시적인 반영은 다음과 같다.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 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렘 22: 28-29).<sup>89)</sup> 브루지만은 예레미야 2장은 땅에 관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말해질 수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땅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sup>90)</sup>

### 3. 포로시대의 땅

이스라엘은 군주정치 동안에 땅의 관점에서 시험을 받았다.<sup>91)</sup>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고 땅을 잃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포로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들었던 것을 다시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한 하나님의 의향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 땅에 대한 관심들은 포로기 동안에 줄

88) Ibid.

89) Ibid.

90) Bruggeman, op.cit.

91) Martens, p. 237.

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의 고토로 돌아갔다. 역사적인 땅으로 귀환과 상징으로서의 땅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신학적 사면들이 나타나게 된다.

#### 1) 회복된 땅

B.C. 6세기 초반 수십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자기땅에서 쫓겨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의해 이국땅에 정착하라는 종용을 받았다(렘 29: 4-7). 그런 종용은 다른 선지자들의 권고와는 다른 상반된 것이었다. 하나냐는 이스라엘이 2년 후에는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28: 1-4). 예레미야는 귀환까지는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렘 25: 12; 29: 14). 하나냐는 거짓선지자였으며 예레미야가 예언한대로 그해에 죽었다. 그러나 거짓선지자에 의해서든 참 선지자에 의해서든 귀환에의 소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sup>92)</sup>

##### ① 땅으로서의 귀환을 알릴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것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십여군데가 넘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희망의 선포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땅으로 부터 쫓겨나게 될 것을 선포한 내용들과 나란히 위치해 있다(렘 16: 13, 15, 12: 14-15참조; 24: 1-10). 두가지 대표적인 구원의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다음과 같다.<sup>94)</sup>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렘 31: 16).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흠은 열방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겔 11: 17).

참으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공식적인 표현에서 잘 고찰될 수 있다.<sup>95)</sup>

92) Ibid.

93) Ibid.

94)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땅으로의 귀환에 대한 선포는 렘3: 11-20; 12: 14-17; 16: 10-18; 23: 1-8; 24, 28: 1-4; 29: 1-14; 30: 1-3; 10-11; 31: 2-14; 32: 1-44; 42: 1-22; 50: 17-20; 겔20: 39-44; 34: 1-16; 35: 1-36, 15; 36: 16-36; 37: 1-14, 15-28; 39: 21-29.

95) Martens, p. 238.

## a) “내가 돌이킬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한가지 형식은 히브리어에서는 동족어원의 말로 결합되어 있는 “내가 돌이킬 것이다”이다. 구약에서 이 구절은 20번 이상이나 나타나는 데 절반이 예레미야서에 있다. “위로의 책”(렘 30-31)도 이 구절로써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약속에 대해서 AV와 같은 초기 번역들은 “바벨론 포로의 회복”으로서 “내가 돌이킬 것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용법상의 이유때문에 그런 번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람어에서 어떤 형식의 빈도로서 볼 때 그것은 그 형식이 포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6)</sup>

그 표현은 상실의 회복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렘 30: 18; 33: 11 참조). 땅과 연합되어 있는 표현은 예레미야서에서 뿐만 아니라(33: 10-11; 32: 42 이하) 다른 곳(신 30: 3; 암 9: 14-15)에서도 나타난다. 더우기 그 표현들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애굽과 관계해서도 나타난다. “내가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땅 곧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겔 29: 14). 또한 땅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엘람(렘 49: 39) 모압(렘 48: 47), 소돔(겔 16: 53) 그리고 암몬(49: 6)과 같은 나라들에 사용되어 있다. “돌이키게 된다는 것”은 땅으로 돌아가리는 신적은혜의 표시로서 특별한 설명이다.<sup>97)</sup>

## b) “to plant”의 의미

예언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두번째 형식의 절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 ‘to plant’한다는 것이다.

‘to plant’의 어근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20번씩이나 발견된다(렘 32: 41; 24: 26; 42: 10; 45: 4; 겔 36: 36). 성경에서 이런 동사들의 주어는 항상 야웨이며 목적격은 백성, 집단, 또는 심지어 몇몇 집단들이다.<sup>98)</sup> ‘to plant’는 이스라엘의 구원역사(시 80: 9)와 관계해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문화적 환경을 지닐 수 있는 반면에 ‘build and plant’는 어린 아이의 탄생 때에 성공을 위해 비는 것의 한 표현으로서 사용되었다. 그 소망은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결혼하고 집을 세우고 포도원을 심는 것이었다.<sup>99)</sup>

그러나 예언자들이 입에서 나온 이러한 말들은 신학적으로 채택되었다. ‘build and plant’는 생생한 언어로서 구원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시도이며 야웨의 구원행위에 대한 친밀한 어조를 포착하기 위한 시도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심을 것이다”와 같은 강력한 표현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와 성공을 위한 열심한 안전과 확고한 부동의 전망에 주의를 불러 일으키게 한다.<sup>100)</sup>

성경의 기록은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선포 뿐만 아니라 귀환 그 자체를 알려 준다. B.C. 538년에 고레스에 칙령은 포로들로 하여금 팔레스틴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 ② 땅으로서의 귀환에 대한 동기들

## a) 야웨의 자비

귀환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들은 복잡하다.<sup>101)</sup> 그러나 그 중에 두가지 관찰결과는 중요하다고 본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피하게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논리적이거나, 그것은 언약의 성격과 이스라엘 편에서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02)</sup>

귀환에 대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야웨의 성품에 대한 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sup>103)</sup> 야웨는 자비로우시다. 자기백성에 대한 야웨의 관심은 그들을 땅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평안의 생각들(29: 10-11)이라는 것을 들었다. 귀환에 대한 약속들이 강조되어 있는 “위로의 책”(30-31)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긍정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 하였다”(렘 31: 3)고 한다.

만약 야웨의 자비가 직접적으로 언약에 관계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국앞에서 이스라엘을 그의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는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오직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sup>104)</sup>

## b) 야웨의 명성

에스겔 36: 16-36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있음이

96) E.A. Martens, “Motivations for the promise of Israel's Restoration to the Land in Jeremiah and Ezekiel”(unpublishe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school, 1972), pp. 172ff.

97) Martens, *God's Design*, pp. 238-239.

98) Ibid.

99) Robert Bach, “Banen and pflanzen”, in R.Rendtorff and Klans Koch eds., (Neu-

kirchen:Neukirchener, 1961) quoted in E.A. Martens, *God's Design*, p. 239.

100) Martens, *God's Design*, loc. cit.

101) Ibid., p. 240.

102) Ibid.

103) Ibid.

104) Ibid.

주목된다.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고 하신 의미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23절) 야웨의 이름을 위하여인 것이다(22절). 야웨이름에 대한 모독은 열국들 가운데서 나타났으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고토로부터 쫓아냄으로써 되어진 것이다(20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백성을 구원하는 야웨의 무능력을 의미했으며 열국들은 신성한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야웨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관한 모든 말들은 열국들과 관계해서 나타난다.<sup>105)</sup> 왜냐하면 그들의 목전에서 야웨가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야웨의 이름에 해를 입히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스라엘을 고토로 귀환시킴으로써이다.<sup>106)</sup> 언약이 아니라 이 경우에서도 야웨자신의 명성이 구원행동에 대한 동기가 되고 있다.

## 2) 상징으로서의 땅

후기포로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열심은 삶의 공간 그 자체 보다는 상징화된 땅에 대해서 훨씬 다양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sup>107)</sup>

### ① 땅은 선물이었다.

처음부터 땅은 선물로서 이해되었다. 전통은 야웨의 소유권에 관한 주장들로써 풍부하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선물로서의 땅에 대한 확인들이 더 풍부하다.<sup>108)</sup> 땅과 관계해서 ‘to give’의 표현은 성경에서 약 150번씩이나 나타난다. 선물이라는 언어는 포로후시대에서도 여전히 통용된다. 그 땅은 야웨가 ‘열조들’에게 준 땅이다(겔 20 : 28, 42 ; 25 : 5, 15 ; 28 : 25 ; 36 : 28 ; 37 : 25 ; 47 : 14). 열조들에 대한 선물로서의 땅에 관하여 긍정적인 진술은 (겔 20 : 15, 42) 부정적인 진술 “너희가 흠어졌던 열방중에서의 땅”(겔 11 : 17 ; 20 : 34, 41) 또는 “내가 그들을 쫓아 내었던 땅”(렘 23 : 2, 8, 32 : 27)과 계획적인 대응일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들에게 주었던 땅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는 의뢰만이 있음을 발견한다(왕상 8 : 48 ; 대하 6 : 38).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많은 선포들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보면, 많은 동기적 구절이 “왜냐하면” 또는 “그러므로”에 의해 소개되는데 불구하고 선물로

105) Ibid.

106) Ibid., pp. 241-242.

107) Ibid.

108) 신명기 1 : 8, 35 ; 6 : 10, 18, 23 ; 7 : 13 ; 8 : 1 ; 10 : 11 ; 11 : 9, 21 ; 26 : 3 ; 28 : 11 ; 30 : 20 ; 34 ; 34 : 4 etc.

109) Martens, *God's Design* ., p. 243.

서의 땅이 귀환에 대한 이유로써 주어지지 않는다.<sup>110)</sup> 그러나 선물이라는 땅의 특성은 관습적 어휘의 부분이 되었다.<sup>111)</sup>

### ② 땅은 약속된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땅 약속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라고 말한다(느 9 : 8 ; 9 : 23).

그러나 “땅의 성취이후에 땅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계획된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웨께서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던 가를 증명하는 데 기여한다”고 한 W.M.CLARK의 견해에 동의한다.<sup>112)</sup>

땅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과 그것의 성취는 역사의 한 요소이다. 그러나 포로기에 예언자들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전한다. 땅은 한번 더 약속의 주제가 된다. 그러나 두가지 약속들은 적어도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에서 땅은 언약의 구성요소였으며 포로기의 선포에서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약속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준비였다(겔 34 : 25 이하 ; 36 : 24 이하).<sup>113)</sup> 그러나 둘다의 경우가 약속은 땅과 관계가 있다.

### ③ 땅은 축복의 장소였다.

풍부와 안식, 양자의 축복은 약속된 땅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 주요 요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풍부의 축복을 누리도록 의도했던 것처럼(느 9 : 25 ; 느 9 : 36)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것을 의도하신다.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너게 주리라”(렘 3 : 19) 그 땅은 선택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했던 그의 산업이었다(렘 3 : 19). 귀환하는 사람들은 열매와 풍부를 기대할 수 있었다(겔 34 : 14). 야웨께서 곡물을 불러 일으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것의 소산과 나무열매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겔 34 : 27 ; 36 : 8, 30). 일단 땅에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번영을 기대할 수 있었다. 진실로 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풍부의 암시였다.

또한 땅은 안식의 암시였다. 주변의 열국들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자 했으므로 거기에는 지속적인 안식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땅의 물질적 부만은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가고자 한 이상은 그들을 방랑으로부터 멈추게 할 것이며

110) Martens, *God's Design* ., loc. cit.

111) Martens, *God's Design* ., loc. cit.

112) W.M. Clark,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Land promise* (unpublishe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64), p. 16.

113) Martens, *God's Design*, loc. cit.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신 3:20; 12:10). 이제 포로기 동안에 에스겔은 다시금 안식의 주제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으므로(37:26) 땅에서 짐승으로 부터이거나 땅이 없는 적으로 부터이든지 간에 평화로운 삶에 대한 위협요소는 제거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땅은 아름다운 삶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누구든지 두려움이나 걱정없이 땅의 풍부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sup>114)</sup>

④ 땅에 적합한 삶은 도덕적·종교적 삶이다.

도덕적·종교적인 삶은 땅에 적합하다.<sup>115)</sup>

예레미야는 그의 성전설교에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으로 부터 멈추며, 다른 이방신을 좇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의 행실을 고치도록 백성들에게 간청했다(렘 7:1-7). 이러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요구들에 대한 순응에 근거해서 야웨께서 그 백성으로 땅에 존속케 하시리라는 것은 약속된 것이었다. 비슷하게 에스겔도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땅에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요구들이 중요한 것임을 말했다(겔 33:25-26). 에스겔은 땅으로 귀환할때쯤에 그 땅의 백성들이 땅을 더럽혔으므로(스 9:11) 땅이 가증한 일들과 불순한 이유로 인해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 것”(겔 11:18)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했다. 희망적인 부분은 심령을 정결케 하므로써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겔 37:23).

그 희망은 스가라에 의해서 반복되었는데 주께서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의 백성을 동방에서 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슥 8:7-8). 그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직과 땅 사이의 관계는 전통안에서 잘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에스겔의 개혁은 특별히 참도덕성에 근거해서 땅에서의 삶이 약속받을 수 있다는 그의 인식안에서 세워진다. 에스겔에게 그 땅은 더러웠으므로 언약적 삶을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스 9:11). 정화는 도덕적인 범위를 정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는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는 것이다(스 9:12). 도덕적인 행동가운데 특별히 근친결혼금지,

114) Ibid., pp. 244.

115) Ibid., pp. 244-246.

안식일 성수, 땅분배. 이 세가지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땅이 몰수 되었다고 개혁자들은 간주했다.<sup>116)</sup>

에스겔로 부터 들었던 새로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새로운 심장을 줌으로써 그 백성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겔 11:19-20; 36:26-27).

예레미야 또한 영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백성들에 관해서 말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자격의 의미를 취한다. J.KLAUSNER는 “이스라엘은 구속이전이 아니라 구속 이후에, 즉 이스라엘이 자기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고 말한다.<sup>117)</sup> 땅은 그것에 맞는 특별한 삶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땅은 야웨의 자기제시의 수단이 된다.<sup>118)</sup>

우리는 앞에서 야웨의 백성을 그 땅으로 부터 몰아낸 것 때문에 열국들이 야웨의 이름을 얼마나 알잡아 보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야웨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 사건이 열국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게 될 것을 단언함으로써 그들의 보잘것 없는 판단을 시정하신다(겔 36:18 이하).

땅은 야웨 자신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실 수 있는 매개수단이 된다. 땅은 이스라엘과 관계하든지 또는 관계가 없든지 간에 계시적 기능을 가진다. 땅은 열국들의 교육적 과정속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조물, 즉 도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아가서 야웨에 관하여 알리게 되었는데 땅에 관계된 사람들의 운명을 통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되었다.<sup>119)</sup>

“땅에서의 생활을 묘사하는 본문에서는 야웨가 축복의 하나님 곧 자연의 하나님으로서 보여진다. 그러나 귀환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본문에서의 야웨가 역사의 하나님으로서 보여진다. 땅은 한분으로서 역사의 하나님, 자연의 하나님 모두들 다 수용한다.”<sup>120)</sup>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다. 이 과정에서 교육적인 도구들은 거룩한 전쟁, 성막, 현현, 성전 등을 포함하는데 땅 또한 이 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게 된다.

116) Bruggemann, pp. 153ff.

117) J.Klausner, *The Messianic Idea in Israel* (New York:Macmillan, 1955;London:George Allen and Unwin, 1956), pp. 117ff., quoted in E.A. Martens, *God's Design*, p. 246.

118) Martens, *God's Design*, p. 246.

119) Ibid.

120) Martens, *Motivations*, p. 353.

### III. 결 론

이상에서 볼 때, 창세기에서 사사기에 이르는 문헌의 구성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으며 땅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들로서 작용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땅의 약속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지목되어 있으며(창 12:5-7) 다윗시대에 약속된 땅에 가장 근접하는 경계선까지 성취되었다. 이것은 땅의 약속이 성경에서 더 큰 약속성취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땅의 약속과 선물사이의 관계는 밀접하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출 6:8). 땅이 선물이라는 주제를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야웨편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 레위기 25:23 “...토지는 다 내것임이니라”는 구절은 야웨가 땅의 소유주이며 이스라엘은 소작인임을 밝히는 것이다. 여호수아 14장, 에스겔 48장, 민수기 36장의 기업의 분배제도는 땅은 단순히 “상업적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께 의무가 있는 땅이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다. 이것은 기업이라는 선물의 성격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책임이 상호보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땅은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으며, 그것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축복으로서 갖는 땅의 의미는 풍부와 안식이다. 무엇보다도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위에 있기 때문에(신 11:12) 혜택받은 땅이며 일종의 낙원같이 나타난다. 이 땅에서 얻게되는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식처,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 땅의 점령은 특별한 형태의 질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땅에서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2:1의 “네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이며 제의적인 책임과 땅 사용에 관계된 특별한 규칙들과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밭을 디디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땅에 살게 되는 때까지 나아간다.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목적은 그 백성을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혜문학은 지혜와 생명의 주제외에 창조의재반복, 자연의 찬미, 방정한 도덕적인 삶, 야웨에 대한 경외, 그리고 삶의 기술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이것들은 징계와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이스라엘의 땅의 소유와 아름다운 생활의 약속은 지혜문학이 강조하는 삶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지혜문학이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역사적인 자료들은 공동체와 자원들, 특별히 경영과 관계되어 있다. 솔로몬의 경우에서 볼 때 땅 경영 지침과 관계된 야웨의 명령들을 위반했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웨종교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게 했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을 잃어가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땅의 상실에 있다.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말씀은 땅에 계속적으로 남기 위해서는 야웨의 명령을 지키라는 반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고 결국 땅을 상실하게 되리라는 확고한 선포들로 대치되었다.

포로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잃었던 땅으로 돌아가라는 약속을 에스겔과 예레미야로부터 들었고 B.C. 586년 고레스의 칙령하에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게 된 이유들은 복잡하지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맺은 야웨의 언약때문은 아니다. 귀환에 대한 주요한 요인은 야웨의 성품, 즉 그의 자비로우신 행동에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열국 앞에서 더럽혀진 야웨 자신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언약 때문이라면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땅은 야웨 자신에 관해서 계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매개수단이다. 땅은 이스라엘과 관계하든지 또는 관계가 없든지 간에 계시적인 기능을 가진다. 땅은 영국들의 교육적인 과정속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조물이었다.

본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땅과 분리해서 살 수 없는 인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역사속에서 땅을 도구로 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구체적인 땅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 참 고 문 헌

- 이병렬, “에레쯔 이스라엘” 서울: 요단출판사, 1987.  
 Blocher Henri. *The Fear of The Lord as The ‘Principle’ of Wisdom*, Tyndale Bulletin 28, 1977.  
 Bruggemann W. *The Land: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Clark W.M.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Land Promise*. unpub.

- lishe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64.
- Davies W.D. *The Gospel and The Land*.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Herman J. *Nah<sup>a</sup> lah and Nahal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5.
- Kaiser Walter C. *Toward An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78.
- Klausner J. *The Messianic Idea in Israel*, New York: Macmillan, 1955: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6.
- Martens E.A. *God's Design*, London: Inter-Varsity, 1981.
- "Motivations for the Promise of Israel's Restoration to The Land in Jeremiah and Ezekiel, unpublishe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school, 1972.
- Miller Patric D. *The Gift of the Deuteronomical Theology of Land*, Interpretation 23, 1969.
- Murphy R. "The Kerygma of The Book of Proverbs", *Interpretation* 20, 1966.
- Rad G. von. *The problem of Hezateuch, and Other Essays*, trans. E.W. Truman, New York: McGraw-Hill, 1966.
- Wisdom in Isreal* Mashville: Abingdon, 1972.
- Ruffle J. "The Teaching of Amenemop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Book of Proverbs", Tyndale Bulletin 28, 1972.
- Wright C.J.H. *Family, Land and Property in Ancient Israel-Some Aspects of Old Testament Social Ethics*, University of Canbridge, 1976.
- 맥코미스키 T.E. "계약신학과 약속"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7.
- 짐머리 W. "구약신학" 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박종철, "기업분배의 의의" (여호수아서 강의안)
- 기독교 대백과사전 VOL. 7. 서울: 기독교문사, 1982.
-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I.R. Laird Harris Ed. Chicago: Moody Press, 1981.

## 고재수 교수의 변명에 대한 논박

차 영 배

(총신대학원교수, 교의학)

"고재수 교수의 성령으로의 세례에 관하여"(고려신학보 제16집)라는 필자의 글에 대한 고재수 교수의 답이 고려신학보 제 17집(1989, 6, 1)에 실렸다.

원래 필자는 고재수 교수의 성령세례론에 대한 논박을 단행본으로 쓰려고 했으나, 고재수 교수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자신의 답이 나온 후에 단행본을 쓰든지 하면 좋겠다" 하기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편지의 회답은 오지 아니했다. 그러나 고려신학보에 그 답이 실린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이젠 단행본을 낼 수 있으나, 고려신학보에 이 답에 대한 논박을 먼저 쓰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또 제 16집에 쓴 것과는 제 19집에 실릴 것을 합하면 단행본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재수 교수의 답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논박코자 한다.

### I. 필자의 오해에 관하여

세가지 오해를 들고 있으나, 그 실은 다섯가지이다.

1. "오순절 이후로부터 성령은 넘치게 부어졌다"<sup>1)</sup>는 것은 바빙크의 사상인지, 혹은 고재수 교수 자신의 사상인지 모호하다고 한 필자의 물음에 "바빙크의 생각임이 명백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인용된 부분만 가지고 바빙크의 견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용된 바빙크의 책(Mag. Dei)에 보면 "오순절 이후로부터 성령은 넘치게 부어졌다"라는 문구가 없고, 또 그 부분은 성령의 "쏟아부으심"(uststorting) 또는 "부어주심"(uitgieting)에 관한 언급이 있음을 보아서 바빙크는 오순절사건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오순절 이후로부터 성령은 넘치게 부어졌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1) 고재수, 성령으로의 세례, p. 28, 각주 34.